



## 미 증시, 양호한 GDP, 기업실적 우려로 하락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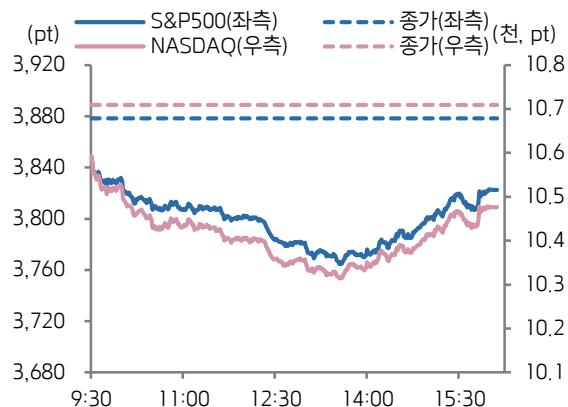
22일(목)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성장을 결과에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 부각, 기업실적 기대감 후퇴되며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였으나, 낙폭과대 인식 속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 마감 (다우 -1.05%, S&P500 -1.45%, 나스닥 -2.18%)

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.6 만건(22.2 만건, 전주 21.4 만건)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주대비로는 증가. 2주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67 만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.

3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.2%(예상 2.9%) 기록, 1 분기 -1.6%, 2 분기 -0.6%의 역성장을 되돌리며 상승. 개인소비는 2분기 2.0%에서 2.3%로 증가했으며, 이는 고물가에도 소비와 기업 수요가 견조함을 시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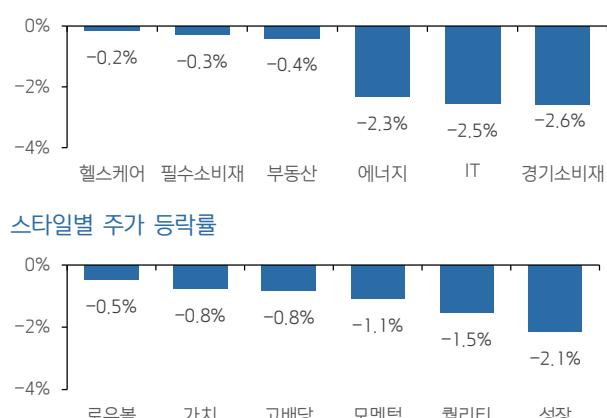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헬스케어(-0.2%), 필수소비재(-0.3%), 부동산(-0.4%)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, 경기소비재(-2.6%), IT(-2.5%), 에너지(-2.3%)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커짐. 애플(-2.38%), 알파벳(-2.03%), 아마존(-3.43%), 메타(-2.2%) 등 시총상위주들은 하루만에 하락 전환. 특히 테슬라(-8.88%)는 인도량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모델 3 와 모델 Y 의 판매가를 낮추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보도에 실적 우려 부각되며 5 거래일 연속 하락. 전일 마이크론(-3.44%)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2023 년까지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이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전체 직원의 10%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것으로 언급하며 하락, 엔비디아(-7.04%), AMD(-5.64%), AMAT(-7.84%) 등 반도체주 동반하락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%대 급락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3,822.39	-1.45%	USD/KRW	1,276.44	-0.71%
NASDAQ	10,476.12	-2.18%	달러 지수	104.41	+0.24%
다우	33,027.49	-1.05%	EUR/USD	1.06	+0.02%
VIX	21.97	+9.47%	USD/CNH	7.01	+0.01%
러셀 2000	1,754.09	-1.29%	USD/JPY	132.35	+0%
필라. 반도체	2,533.33	-4.2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3,421.10	-1.05%	국고채 3년	3.570	-6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470	-9bp
Eurostoxx50	3,823.29	-1.26%	미국 국채 2년	4.271	+5.9bp
MSCI 전세계 지수	610.14	+1.19%	미국 국채 10년	3.679	+1.7bp
MSCI DM 지수	2,626.92	+1.31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952.98	+0.2%	WTI	77.49	-1.02%
MSCI 한국 ETF	56.90	-0.73%	금	1795.3	-1.6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 check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**한국 ETF 및  
야간선물 동향**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73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89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1.38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90.1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**주요 체크 사항**

1. 엔화 강세 및 달러 약세로 인한 원/달러 환율 1,270 원대 안착 여부
2. 예상치 부합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및 대형주 주가 흐름
3. 거래대금 감소 및 모멘텀 부재에 따른 종소형주 순환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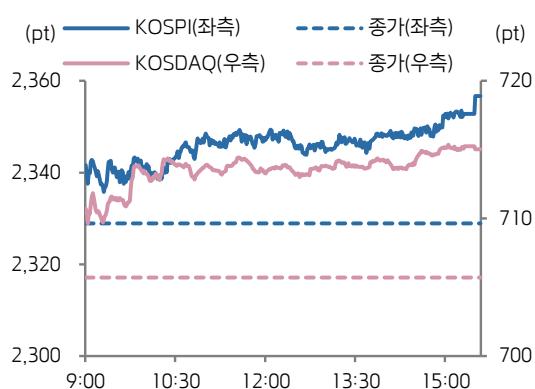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으로 반등했던 증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결과에 하루만에 급락세를 시현. 4 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금리에서 기업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및 인력 감축 예고가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를 높이며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급락. 본격적인 실적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22 일(목) 코스피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반등한 미 증시에 힘입어 시총상위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 (KOSPI +1.19%, KOSDAQ +1.32%). 특히 어제 항공, 해운 등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중국이 1 월 항공 노선을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에 기인. 중국 항공사들이 하루평균 승객 수송량을 2019 년 70% 수준까지 증편할 계획을 밝히며 국내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추가 증편 기대감 부각. 즉 리오프닝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효하므로, 연말까지 단기 모멘텀의 부재로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순환매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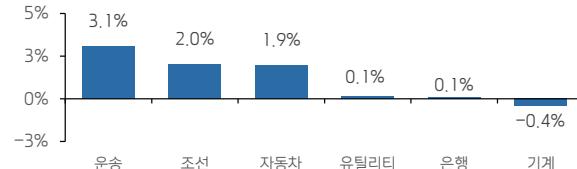
한편 금투세 시행은 2 년 유예되었지만 대주주 요건은 기준과 동일하게 10 억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.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으로 개인들의 거래대금 역시 급감. 28 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, 27 일에 대주주요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. 추가적으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역시 반등에 성공했지만, 어제 시총상위주 중 LG 에너지솔루션은 1%대 하락세 시현. 테슬라 관련 매출 감소 불안에 더해서, 1 월에 3%에 달하는 오버행(잠재적 물량 부담) 이슈도 존재하는 상황. 물론 관련 물량이 전부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.

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**고지사항**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